

우리민족의 내면적 정열 숨어있는 단청을 찾아서

《한국의 단청》 펴낸 곽동해씨

유려한 붓질이 관음보살의 옷주름으로 내려앉을 때, 장인의 땀도 그 흐름을 멈추고 숨을 죽일 것 같다. 사찰의 불화를 보면 늘 떠오르는 생각이다. 저 막힘없고 마디없는 선은 호흡을 잇고 또 얼마나 지나야 주옥 '거어델' 수 있을까. 그렇게 수많은 시간 동안 숨을 멈추고 마음을 가다듬은 곽동해씨(44,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강사)가 우리 미술의 정화이자 보배인 단청을 친절하게 해설한 《한국의 단청》(학연문화사)을 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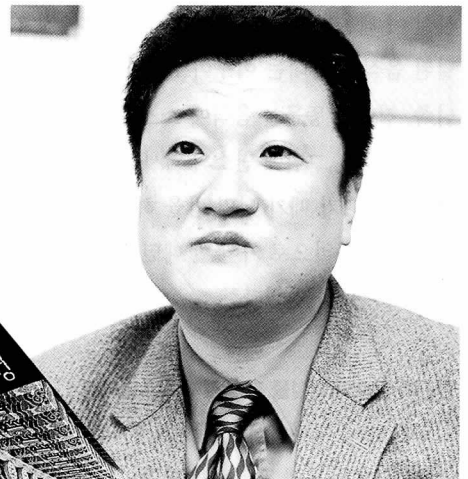
“이 책은 단청을 바로 보기 위한 길잡이입니다. 일반인들이 단청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아가 상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단청을 말이 아닌 고급표현, 즉 고도의 상징으로 활용할 수 있게 기획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이 책은 단청에 대해 제대로 알고 새기기 위한 연구모임이자 단청 사전이다. 단청의 기원과 역사에서 시작해 우리 단청의 조형양식과 문양을 소개하고, 단청 채색에 쓰이는 안료와 도채방식, 단청 시공 과정까지 다양한 사진과 도판을 곁들여 자세하게 설명한다. 부록으로 단청 및 고건축 용어 해설과 문양초도 수록했고, 찾아보기도 세심하게 달았다.

그는 처음엔 단청을 그저 사찰의 장엄함과 화려함을 강조하고 불국토를 지향하는 보시로 이해했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을 다니며 우리 단청의 고유성과 독특함을 더욱 잘 알게 되고 매료돼 그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일에 빠져들게 됐다.

“백의민족이라는 데 이견이 많지만, 실제 우리 민족은 흰옷을 많이 입었고 무척 소박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또 다른 일면은 화려한 단청의 대비처럼 정열적입니다. 백의가 우리의 외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단청의 극대비는 우리 민족의 내면을 대변하는 것이죠.”

탈락이 쉽다는 단청의 특징은 연구자들을 더 애타게 한다. 쉽게 떨어지고 보존도 어려운데다, 덧칠하는 단청의 습성 탓에 원형을 연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곽동해씨
학연문화사/B5변형/516면/50,000원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지런한 연구에 비례해 성과는 나날이 쌓이고, 연구자와 장인들의 염원대로 불교미술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의 손에서 이렇게 단청책이 탄생했으니 한시름 놓은 셈이다.

그에겐 새로 쓰고 있는 중 연구서와 단청문양집, 강의, 불화와 단청작업 등 몸이 열개라도 모자랄 일들이 늘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그는 종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늘 주목할 만한 의견을 내놓는 탁월한 종연구가이자 단청연구를 더욱 탄실히 해내고 집대성할 의무를 진 단청연구가다. 게다가 평생의 업으로 붓을 쥔 '불교인 예술가'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그의 연구와 작업은 가족과 동료의 큰 신뢰와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큰 위모와 너른 이름(그의 이름은 동해(東海)다)만큼이나 풍성한 결실을 거둘 것이다. 선친이 손수 '귀암'(龜庵)이라는 법명을 지어 거북이가 암자를 찾아가는 것처럼 진득하게 학문에 매진하라는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다니 붓 쥔 손이 한치의 흔들림도 없을 것이다. — 차정신 기자

독서계의 흐름과 출판계의 이모저모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입철본을 제작, 인증 자료 가치가 높아진 합본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 《출판저널 합본호 판매》 —

- 합본1호(날권1~10호) 5,000원(판매) · 합본6호(날권51~60호) 9,000원(판매)
- 합본2호(날권11~20호) 5,000원(판매) · 합본7호(날권61~70호) 10,000원(판매)
- 합본3호(날권21~30호) 5,000원(판매) · 합본8호(날권71~80호) 10,000원(판매)
- 합본4호(날권31~40호) 5,000원(품질) · 합본9호(날권81~90호) 10,000원(판매)
- 합본5호(날권41~50호) 5,000원(판매) · 합본10호(날권91~100호) 10,000원(판매)

*합본호 구입시 우편료는 수취인 부담입니다.
*구독에 불편하거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연락바랍니다.
*구입문의 : ☎ 732-1433

잔혹한 자연과 맞서온 산악인들의 투지와 좌절의 기록

《심산의 마운틴 오딧세이》 펴낸 심 산씨

시나리오 작가 심 산씨(42)는 글을 써서 먹고살지만 '감히' 책을 내다버리곤 한다. 그는 "두번 읽을 가치가 없는 책은 한번 읽을 가치도 없다"는 심상치 않은 신념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살아오는 동안 그런 책은 과감하게 처분해 왔다. 얼마 전까지 그는 '소수정예'가 돼가는 서재를 볼 때마다 비움의 쾌락에 젖어드는 특이한 사람이었다. 바로 '산서' (山書, Alpine book)의 세계와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1990년대 들어, 산에 도전한 인간의 기록인 산서를 읽기 시작하면서 심씨의 서재는 다시 책으로 붐비기 시작했다. "마르고 닳도록" 읽어도 언제나 새롭고 신비로운 산서를 구하기 위해 헌책방 문턱을 부지런히 넘었다. 그러길 10년, 어느새 그는 7백여권의 산서를 모은 '별종 장서각' 가 돼 있다.

《심산의 마운틴 오딧세이》(풀빛)는 이런 심씨가 자신의 보유 장서 가운데 가장 재미있고 뛰어난 산서 24권을 엄선해 재독(再讀)한 '독서에세이'다. 산서에 문의 한일지라도 단숨에 책의 절반 고지에 올라서게 할 만큼 흡입력이 대단하다. 맛깔스런 문체로 산서의 세계를 중형무진하는 심씨는 그러나 그 공을 산서에 돌린다.

"산서에는 피와 땀과 눈물로 얼룩진 육체의 기록이 있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하고 무상의 가치에 흡족해할 줄 아는 인간 정신의 고매한 성취는 평범한 문학작품을 뛰어넘고도 남죠."

심씨는 봄 랭글리의 장편소설 《신들의 트래버스》(김일모, 신어림)를 픽션과 논픽션을 절묘하게 결합한 대작으로 평가한다. 이 소설은 베르너 오버란트 주봉들 가운데서도 하늘을 향해 가장 사납게 이빨을 곧추세운 '아이거북벽' (1800m)에 도전했다가 좌절한 클라이머들의 생애를 기록했다. 수많은 청년들의 죽음을 거느린 잔혹한 권위의 산이, 친구가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뤄주려는 우정과 투지 앞에서 정상을 내주는 장엄한 광경이 심씨를 매혹시켰고, '작가 심 산' 을 좌절에 빠뜨렸다. 처녀로 자란 '난다 데비' 가 "나를 태어나게 해줬다는 산"을 동경해오다가 결국 그 산



심 산씨

풀빛/A5신/292면/15,000원

의 정상에서 체력이 소진해 뼈를 묻는다는 《난다 데비》. 아버지 존 로스켈리가 감정을 배제한 채 써내려간 이야기는 가슴을 아리게 한다.

"클라이머는 산에서 죽는 것을 편안히 여기죠. 산을 사랑한다는 확신, 인생에 최선을 다했다는 만족감, 산의 일부로 돌아간다는 믿음 속에서 육신의 소멸을 위안받습니다."

산서 만큼 등반도 즐기는 심씨가 바위산을 오르다 "추락을 먹고" 죽을 뻔한 경험을 회상하며 하는 말이다. 산악인 심씨는 암벽등반보다는 트레킹을 주로 한다. 겁나서가 아니라 "그냥 그게 체질에 맞아서"다. 영화 <비트>와 <태양은 없다>의 시나리오를 쓴 바 있는 심씨는 현재 낭가파르밧을 올라가는 내용의 산악영화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 한국영화 봄 덕택에 관객층이 얇은 산악영화임에도 스폰서가 나섰던 것. 그 덕택에 심씨의 입에서는 매일 행복한 비명이 터진다. 그가 좋아하는 "글쓰는 일, 산에 오르는 일, 영화 만드는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성민 기자

<p>출력" 24시간 당신을 위한 논스톱 대동이 책임지겠습니다</p> <p>자동하리교미무료</p> <p>대동전산</p>	<p>IBM & MAC 전문출력 Corel Draw, 아래한글, MS-Office, 훈민정음, 매킨토시용 기타 소프트웨어</p> <p>아래한글 및 IBM 분판출력 필름분판출력(4x6전지) 고해상대형드럼스캔 대형실사출력,CLC칼라출력 인화지,단도필름,레이저프린트 칼라복사(다량복사시할인) Data CD Backup</p> <p>출력문의 환영합니다</p>	<p>대동전산 2275-0196~7 E-mail : sogo0318@cholllian.net</p> <p>명보극장 ● 울지초3기 지하철역 10번출구 ● 울지초3기 시장 ● 울지초3기 ● 장계천 ● 울지초3기 ● 울지초3기 ●</p>
---	--	--